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30분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전 (4부) 2시 4시
주요일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전 (3부) 2시 4시
주요일배 (1부) 18시 30분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2월 10일 (제676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주·일 예배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칼럼

걸림돌을 디딤돌로

나는 장점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약점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 나는 무지해서 더욱 공부했고, 능력이 없어서 산에서 부르짖었고, 부족해서 단에서 학업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이다. 불세출(不世出)의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11:30)고 말했다. 자신의 능력이 로마 시민권이나 가말리엘에게 배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약점이나 콤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역사 속의 위인이나 인물들이 약점이 없어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범인(凡人)과 다른 것은 바로 걸림돌인 약점을 디딤돌 삼아 성공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베토벤은 귀머거리가 된 후에 오히려 더 깊은 자신만의 음악적 개성을 표출하여 교향곡 9번을 비롯한 수많은 주옥같은 명곡을 작곡했고,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앓고 있는 간질병을 작품에 이입하여 세계문학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낳았다. 이렇게 약점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토양이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미려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다. 이것은 자신의 걸림돌인 약점 때문에 노력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콤플렉스가 있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세상으로, 성공의 시대로 날아라.

연장을 가는 것이 지혜다

지난 30일에는 멕시코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의 강사로 연단에 오르셨다.

"오늘 드디어 우주선 '나로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나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한 사람 중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기도한 것을 믿는 목사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11:6)고 했다.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험한 산과 거친 바다도 믿음으로

이 낮겠다는 그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처럼, 내가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믿고 행하지 못하는가?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방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다. 많은 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대로 이미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그 분께 물을 때 응답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셨다(요16:8-11). 또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 회개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어진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막16:17-18)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 쉬지 않고, 어디



JC 아카데미 비전세미나 (2013.1.30 엘루체 웨딩홀 컨벤션 센터)

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뛰어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어 목사님께서 '방언 기도'의 위력에 대해 말씀하셨다.

"방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당부 가운데 하나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육체, 즉 '건강'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먼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내가 60이 넘는 나이에 시차를 극복하고 보름 간격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방언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이사가 선지자도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더한다'(사28:12)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 낙심되는 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이 바로 방언 기도이다. 그런데 모두들 행함이 없다. 헬무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을 향해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음성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안테나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다. 병든 안테나를 고쳐 세우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사(롬8:27)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은 결국 '진실의 결핍' 때문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잠2:7),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다(잠15:29). 고넬료를 보라. 그가 평소 경건하며 구제하는 삶을 살았기에(행10:1-2)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행10:44-4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깊이 기도할 때,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

서든, 무지로 기도할 수 있다. 더 이상 방언 기도를 늦추는 이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기도하라. 새벽기도로, 하루 일을 마치고 기도처에서, 또는 자기 방과 차량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라."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은 수확할 때가 아니요, 불필요한 부분을 가지치기 하고, 매사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투자할 때라고 강조하셨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을 여는 열쇠(key), '방언기도'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직통하는 삶을 살자. 그리하여 매사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 가운데 빛과 생명이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국진 기자



이초석 목사 과테말라 집회

▶ 장소: 과테말라 & 알모통고 ▶ 일시: 2월 18일(월) ~ 3월 2일(토)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8:13~14)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가? 대화하라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행당한 아이가 자살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자살한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몇 번이나 나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말만 했어요. 요즘네 왜 성격이 났어지나? 왜 학교가기를 싫어하냐?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렇게 다그치기만 했지요. 그 아이는 계속 눈으로 절구를 했는데 나는 그걸 못 들었어요. 아이의 이야기는 듣지 않더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었을테...”

어려본, 저수지 바닥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면 저수지 물을 다 퍼내면 됩니다.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무엇이 불만인지, 내 남편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부모님이 불편한 것은 없는지 알려면, 저수지 물을 퍼내듯 대화를 해서 퍼내면 됩니다. 옛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대화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지, 대화하면 열 길 속도 알 수 있습니다.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오리무중인 것이고,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 드세요, ‘자자’, ‘전기료는 얼마 나왔어?’” 이런 일상의 말이 아닌 속내를 털어놓는 대화입니다.

대화(對話)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은 그들의 식탁머리에서 이루어진

처럼 맛고 다녀? 같이 때려야지.” 하며 야단을 친다. 그러니 아이가 이야기를 스톱하는 겁니다. 아내의 이야기도 그렇 습니다. 대개 남편은 아내와의 대화를 피곤해합니다. 뭐 영양가가 없단다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피곤해. 빨리 얘기해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천근구.” 이래버립니다. 그러니 아내가 친구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 화로 한 시간씩 수다를 떠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는 토하든지 싸든지 해야 하거든요. 남편도 그렇습니다. 속 내를 털어놓고 싶는데, 아내는 안 듣습 니다. 힘들다고 하면 남편처럼 말

이 벌어오지도 못하면
서 그런다고 하
고, 매일 돈,
돈, 돈
그렇
니

나이는 부부가 꼬옥 손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식당에서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세상 어느 명화보다도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후,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집회를 다니고, 금요일에는 철야예배, 토요일은 주일예배와 찬양, 주일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에 보따리를 싸서 전국으로 집회를 가고...

이런 세월이 길었습니다. 그러니

자연 아이들에게 소홀
할 수밖에요. 애
들이 몇 학
년 몇 반
인지,
담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오랫동안 방황했었습니다. 대화하지 못한 채 책임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후회하는 일입니다. 애들하고 대화를 했더라면 가슴 아파야 했던 세월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니까? 가족 간에 대화를 하세요. 부부 간에, 부모자식 간에, 형제자매 간에 대화하세요. 그것이 행복의 총족요건입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대화의 장을 여세요. 대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야기 자리를 만드세요. 부모가 먼저 대화의 장을 여세요. 그러면 행복은 벌써 당신 가정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따스한 가정은 보일러를 많이 돌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향집이라서 따뜻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 소통하는 가정이 파스한 가정입니다. 그런데서 자란 아이는 힘이 넘치고, 올바르고, 밝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딘지 모르게 어둡습니다. 받은

명 의(名醫)는 일침(一鍼) 오래 진맥한 후 치료한다

많이 먹는데 힘이 없어 보이고,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우울해보입니다. 냉골에서 자고 난 아이처럼 말입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어려본, 대화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대화로 풀면 안 풀릴 게 없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왜냐? 그들이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어 흔들고, 기분이 나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와는 정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쁘면자 싸울 때 꼬리를 바짝 올립니다. 그러니 개가 기분이 좋아 꼬리를 올리고 가다 고양이를 만나면, 고양이는 싸우러 오는 것으로 여겨 땀피게 되는 겁니다. 만일 개와 고양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대화할 수 있다면 이런 오해는 풀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은 평생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사이가 개와 고양이 같습니까?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니까? 대화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애들 여행을 떠났는데도 연락을 맞고 이기기해보세요. 분명히 관계개선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까? 피자라도 한 판 사서 들고 들어가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에게 쌓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신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야만치리 말고 들어주세요. 당신의 양에 차지 않아도 화 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대화하지 않으면 오래가 생기고, 오래가 길어지면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하기에도 너무 늦습니다.

돌팔이들은 듣지 않고 침통부터 들지만, 명의는 환자의 이야기를 오래 들은 후에 처방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명의가 되세요. 가족의 말을 들어준 후에 처방하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노력해야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앉아 서로 대화를 해보
세요.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점차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즐
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 **할렐루야!**

온돌에서 잘 것이냐
냉골에서 잘 것이냐

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녁식사 시간에 거의 2시간을 할애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가족끼리 음식을 먹으며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될 것이 아닌 자녀와 대화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대화라 아니라 결국 혼례로 끝나게 되고, 좀 큰 자식하고는 토론으로 변저기분이 상한 상태로 끝나곤 합니다.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가족 간의 대화는 먼저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싸웠다고 하면 “그래?” “왜” 하고 물어주면 아이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의 이야기 서두만 듣고 화를 내며 “왜 바로

다 .
그러니
밖으로 돌
수밖에요. 술집
에 가면 「사장님, 사
장님」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럼요. 사장님이 옳지요.」 합니다. 돈
받으려고 그러는지 남자도 다 압니다.
그래도 들어주는 게 고마워서 틈도 엮어
주는 겁니다. 그러다 지나치면 사고치는
거구요. 그러니 제발 이야기를 들어주세
요. 말하는 중간에 차고 들어가 충고하
지 말고, 말을 끊고 야단치지 말고, 이야
기의 반대편에서 서서 토론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해
주면 됩니다. 마치 창을 할 때 추임새 넣
어주듯 말입니다. 참 한 소절 하고 나면
「얼쑤 할 때 더 흥이 나지 않습니까?」 다
시 말하지만,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말
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傾聽)할 줄 아는
자가 상대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
디 하며」(약1:19).

여러분, 제가 60을 넘어 70을 바라보다
보니 가정이 행복한 것 이상 없습니다.



몇 주 전 일이다. 수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전화를 받았다. 어느 권사님의 조카 되는 분이 간암으로 인천 길병원에 입원 중인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다며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셨다. 병원에 가보니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환자, 그는 41세의 젊은이였다. 암을 발견한지 두 달 됐단다. 곁에는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어찌 할 바를 몰라 서성이는 어머니와 다음 달 출산을 앞둔 아내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었다. 결국 그 분은 다음날 밤, 사랑하는 이들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입관할 때다. 모두 다 숙연한 분위기 속

에서 두 분의 장로님들이 환자를 벗기고 수의를 입히려는데, 곁에서 흐느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통곡하며 울부짖으신다. “에야! 안 된다. 추워서 안 된다. 추워서 안 돼...” 그 어머니는 입관실이 지하실이고 겨울이라 아들이 더욱 추울 것이라 여겨지시는 모양이다. 주위가 온통 눈물바다였으며 결국 어머니는 혼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내 귀엔 어머니의 “에야! 추워서 안 된다.”는 통곡 소리가 주님의 외침 소리로 들려왔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은 안 된다! 불과 유황의 그 지옥만은 안 된다! 그곳만은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족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 지옥의 문지방에 서서 주님은 두 손으로 우리를 막으신다. “나를 밟고 가려느냐! 나를 밟고 가려느냐!” (히10:2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날 부평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 6명의 친구들이 운구를 했다. 관을 든 친구들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짧은 세상을 살다 가지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었소. 당신의 친구들이 저토록 당신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지 않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과연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 줄 친구들이 몇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 항로를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의 울부짖음을 뒤돌아보고 한 젊은이는 그렇게 한줌의 재가 되기 위해 화구로 향하고 있었다. 화장을 마치기를 기다리며 나는 무심코 1번 화로에서부터 20번 화로까지 걸기 시작했다. 화로 하나하나에 영정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곳엔 어르신들

사진도 놓여있었고, 어떤 곳에는 젊은이의 사진도 놓여있고... 그런데 그곳에 안타깝게도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유채원 사자모를 쓴 채 놓여있었다.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었는가?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이 시려오는데, 문득 ‘언젠가는 저 자리에 내 사진도 놓여 있을 날이 올 텐데...’ 라는 생각이 가슴에 잔뜩 온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사진도 놓여 있을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거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3년도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일지로 기록하고 계실 것이다. 그 영원하신 생명책 일지에 뭐라고 쓰실까 생각하자.

한 성도를 보내고 참 많은 것을 생각했다. 후회 없이 살다 가야할 텐데...

인천예수중심교회 이하역 목사



몇 년 전에 저의 눈을 끄는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던져 주었던 언더우드 가문이 이제 한국을 떠난다는 기사였습니다.

언더우드 1세는 1885년에 파송받아 교육 사업으로 예수학당(현 경신중·고등학교), 황해도 소재교회, 현 새문안교회,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으며, 1926년에 과로로 사망하여 양화진에 묻혔고, 그 아들 언더우드 2세는 1912년에 파송받아 아버지를 이어 사역을 하던 중, 49년에 좌익학생에게 아내가 살해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부산에서 사역하던 중 과로로 사망하여 양화진에 묻혔으며, 그의

아들 언더우드 3세도 39년에 파송받아 연희 전문대 교수, 41년 추방, 46년 경성대(현 서울대) 교무과장, 한국전쟁 때 해군통역으로 참전, 새문안교회 사무장로, 연세대 상임이사로서 지내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언더우드의 가문은 한국에 생명의 씨앗을 던져 어두움이 해매던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킨 공로 이외에도 한국의 근대사에 적지 않은 공로가 있는 가문입니다. 대를 이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한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충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앞에서 반드시 행한 일에 대하여 결

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조장 일을 하셔야지요?”, “권사님, 이제 봉사 좀 하세요.”, “장로님,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아이가 크면요.”, “시집보내고 나면은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꼭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못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서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

고, 학식이 뛰어나 명성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 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당신의 삶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요. 어떤 목사, 어떤 장로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와 성도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 아무게 목사, 그 사람 충성되었지!’, ‘아무게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2013년,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인천예수중심교회 김상복 목사

※성경에세이※

일생의 프로그램을 짜라

아들아!

얼마 전에 원로장로 모임이 있어 어느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겨놔더니 한참 후에 그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오기로 왜 그렇게 통화가 어렵냐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 왈, 하루에 두 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할 수 없어서 전화를 아예 꺼놓는다고 했다. 그 분 말씀이 자기는 하루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에 영어공부 한 시간, 기도 1시간, 운동 2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70세가 넘으신 분이 말이다. 정말 대단한 분 아니냐?

이바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사람 중의 하나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2시

간 기도하고, 또 아무리 늦어도 밤 2시간의 기도는 빼먹지 않지. 너는 어머니? 70이 넘어서 원로 장로로 적(籍)을 옮긴 신도 저렇게 인생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앞날이 구만리 같은 너는 어떤지 궁금하구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단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전자를 프로그램대로 사는 자라고 한다면, 후자는 무계획한 자라고 할 수 있단다. 누가 성공한 삶을 살겠나?

아들아!

예수님은 인생을 프로젝트대로 실행하신 분이란다. 계획한 프로그램대로 행하신 분이셨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은 공생애를 살기로 계획하고 오셨단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 승천하기로 이미 계획하셨지.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 가기가 힘들어 땀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 분은 프로그램에서 이탈하지 않으셨단다. 그 뿐 아니란다. 그 분은 하루도 계획하시고 그대로 사셨단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셨지. 사복을 서를 입어보면 그 분의 프로그램이 보인다.

사실 계획한 대로 살기는 쉽지 않지. 그래서 성공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성공은 누워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 특특히 대가를 치러야 성공할 수 있단다. 태릉 훈련소에 입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코치가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기만

하겠나? 꼭두새벽부터 운동장을 달리고, 체력 훈련을 하는 게 쉽겠나? 또 체중유지를 위해 프로그램화된 식단을 받는 게 마냥 좋겠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성공 때문 아니겠나?

이제라도 인생의 프로그램을 짜라.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다. 그게 너무 어렵거든 먼저 하루의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좋겠구나. 하루하루가 모이면 일생이 되는 거니까 하루의 프로그램이 결국 일생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 아니겠나? ‘오늘 만이라도 계획한 대로 살아보리라’ 생각하면 결국 성공한 내일이 보장될 거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는 것 이듯, 프로그램 짜놓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 미래는 죽은 것이 되는 것도 아울러 명심하리라.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꿈은 당근을 먹고 자란다

사실 저는 좀 게으른 편입니다. 누워있기를 좋아하고, 잠도 많고, 웬만한 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미루고 보는 편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출자, 좀 더 놀자고 유혹하는 자신과 늘 싸워보지만 대부분은 편지 한번 제대로 못 날려보고 질 때가 많지요.

그럴 땐,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유명인들의 강연을 보거나 그 어떤 청춘보다 열정적이신 이초석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자극을 받아봅니다.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리며 자신을 재촉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약효가 길지 않아, 3일도 못 가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쑥스럽게 꿈은 참 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을 마구마구 흔내고 괴롭히지요. ‘한심하다 한심해, 넌 네가 부끄럽지도 않나? 이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만 뒤처지고 있

을 걸!’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뭐라 해도 마음만 괴로울 뿐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람을 10분 간격으로 맞춰놔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한 번에 벌떡 일어나고, 늘 지각했었는데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며칠 밤을 새서 완성한 저의 아이디어가 팀장님이 방금 생각한 아이디어에 놀려 삼십이 되어버려도 지치기는커녕 의욕이 쏙쏙더라고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부류의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엄마한데 칭찬받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성적이 못 나오면 엄마한데 혼나겠지!’, 이런 불안감으로 공부하는 학생.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이 좋은 성적이 나와도 한 명은 기뻐하고, 한 명은 그저 안도한단지요.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한 명은 자신을 다독이고 다음을 기대하

지만, 한 명은 그대로 자기감에 빠져버린다고 합니다.

차이는 당근과 채찍. 저를 기운 나게 하고 달라지게 한 것도, 채찍이 아니라 바로 당근이었지요. 인정받고 싶다는 당근, 오늘의 삼십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라는 당근, 지금은 씨를 뿌리는 중이라 성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쯤엔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라는 당근, 지금 이걸 끝내면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당근까지, 이것이 높기 좋아하는 저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지요.

지금 시작 안 하면 뒤처진다는 채찍과 지금 시작하면 당장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라는 당근. 어느 원동력으로 새해를 시작하실래요?

전 제 꿈에 당근을 먹어, 게으른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2013년의 목표와 꿈은 우리, 방실방실 웃으며 즐겁게 이뤄봅시다.

신은혜

Good News

어느 날 숲속에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다 헤어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우리 내일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 하루살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뜻이지?” 메뚜기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이 바로 내일이란다.” 하루살이가 고개를 가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 하루살이를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메뚜기는 홀로 외롭게 지내다가 연못가에 사는 개구리를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해 여름 내내 숲

속에서 함께 다니며 많은 이들에게 돈독한 우정을 뽐내며 살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동면 준비를 끝낸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야 돼. 그러니 꽃이 피는 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가 물었습니다. “봄? 봄이 뭐지?” 개구리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응, 봄이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란다.”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메뚜기는 연신 고개를 가우뚱거리다가 찬바람이 불어오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자신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분명히 그 세계는 존재하고 있

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는 죽을 뒤에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메뚜기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메뚜기가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고 나면 모든 의문들이 하나 둘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후를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Edu Section::

자아 정체성(Self Identity)찾기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가 복잡적이고 복잡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래의 복잡하고 복잡한 사회를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은, 이는 우리 사회가 학연과 지연과 혈연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과 자의의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를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고 자유의지가 커지는 만큼 유익한 것도 많은 반면에 불안한 요소도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성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행동이나 사고, 느낌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 정체성 찾기는 복잡하고 복잡적으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져야 할 성장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아 정체성 찾기의 과정은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겪는 수많은 경험과 끝없이 반복되는 실수 및 실패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어렵고도 천천히 형성된다.

요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목적도, 목표도 없이 공부를 위한 공부에 불모로 잡혀 청소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자신이 나아가 갈 방향과 인생에 대해 고민하느라 방향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찾지만 해도 아이의 인생 절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면 부모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자아 정체성 찾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동안 안내하며 기다려주고 억지로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뜻과 바람대로 잘 자란 아이가 부러움의 대상인 시절은 이미 지났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자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정체성 찾기에 더욱 세심한 관찰과 배려를 해야 한다. 더디고 느릴지라도 내 자녀가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면 아이의 미래는 밝고 건강할 것이며,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지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학원장 오자유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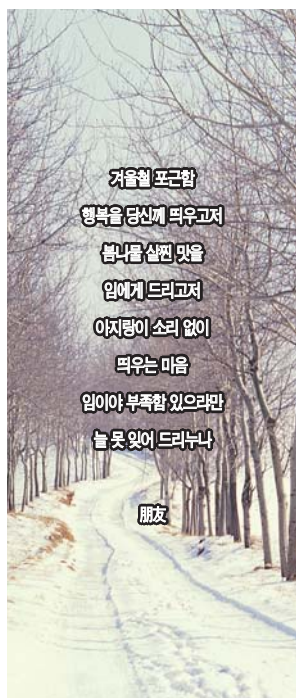
Q&A

Q: 해마다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교회에 헌금한 내역을 확인 받아오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헌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헌금내역을 회사에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헌금 납부 사실을 확인받아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A: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질의하신 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죄책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급여에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공제하여 예납하였다가 연말에 정산하여 확정된 세금이 정해지면, 매월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더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헌금 내역을 확인 받아서 제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게 되므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게 되더라도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시험하려고 질문하였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막12:17)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세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미리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겨울철 포근함
행복을 당신께 띄우고자
봄나들 살핀 맛을
임에게 드리고자
아지랑이 소리 없이
띄우는 마음
임이야 부족함 있으랴만
늘 못 잊어 드리누나

朋友